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적 장면은 공간적 배경 안에서 화자가 포착한 시적 대상을 통해 구성되어 화자의 내면을 반영한다. 시적 대상이 놓인 공간적 배경은 화자가 위치한 현재의 장소일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속의 장소가 화자의 내면에서 환기된 것일 수도 있다. 이때 시적 대상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방향성을 지닌 동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등을 활용한 ㉠ 주관적 변용을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 및 정서를 드러낸다.

(나)

오후
하이얀 들가의 외줄기 좁은 길을 찾아 나간다

들길엔 낯은 전신주가
의장병같이 나를 둘러싸고
논둑을 헤매던 한 때의 바람이
어두운 갈대밭을 흔들고 사라져 간다

[A] 잔디밭에는
옅은 햇빛이 화분같이 퍼붓고
곱게 화장한 솔밭 속엔
흘러가는 물소리가 가득하고
여윈 그림자를 바람에 불리며
나 혼자
조락한 풍경에 기대어 섰으면
쥐고 있는 지팡이는 슬픈 피리가 되고
금 공작을 수놓은 옛 생각은 켜기도 하다

저녁 안개 고달픈 기폭인 양 내려 덮인
단조로운 외줄기 길가에
양상한 나뭇가지는
희미한 축수를 저어 황혼을 부르고
조각난 나의 감정의
한 개의 슬픈 건판인 푸른 하늘만
멀리 발밑에 누워 희미하게 빛나다

-김광균, 「창백한 산보」-

(다)

팔아버린 지 이태 더 지난 옛집이
요즘 들어 부쩍 꿈속에 들어 앉는다

그 마당에서 장작을 패거나 어머니와 다투거나
간밤에는 어린 딸들까지 데리고 가서 북새 놀다가
싫다는 아이들 억지로 재워놓고 혼자 바닷가로 나갔으니
이 나들이는 옛 동지가 외로움을 탈까 봐
그 먼 곳까지 달려가서
아궁이 재를 긁어내고 군불 때고
방방을 끌고 장독들 닦으며 버거운 세간
들먹여보는 ㉡ 쓰디쓴

고해만은 아닐 것이다

몸을 바친 기억이란 뼈에 새겨져
살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절룩거리는 평상에 걸터앉아

[B] 나눌 길 없는 집 한 채와 마주 쳐다보며
서로에게 잔술을 내밀지만
혼자 음미하는 쓸쓸한 뒷맛 같은 것
마침내 뺏속으로 옮겨 앉은 집 허물지 못해
나 또한 퇴락을 안고 살아가느니

-김명인, 「낯은 집」-

01

(나)와 (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감각의 전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공간의 황량한 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내면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과거의 기억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하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에서 '집'이나 '길'과 같은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화자의 의식 세계를 투영하는 매개체이다. 특히 과거의 공간이 현재로 소환될 때, 그것은 상실감에 대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결핍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역설적 기능을 수행한다. 화자는 이러한 공간과의 조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하고 삶의 비애나 근원적인 고독을 확인하게 된다.

- ① (가)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외줄기 좁은 길'은 화자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공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조각난 나의 감정'이 '푸른 하늘'로 투영된 것은 공간을 통해 내면을 객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옛집'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에서 환기된 결과이겠군.
- ④ (다)의 화자가 옛집을 찾아가 '군불'을 때고 '장독'을 닦는 행위는 상실감에 대한 위로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나)의 '황혼'과 (다)의 '퇴락'은 모두 공간과의 조우를 통해 삶의 비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겠군.

03

밑줄 친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매사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편이다.
- ② 이번 사건에 대한 그의 해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 ③ 예술가는 사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 ④ 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⑤ 인간의 인식은 보편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타인과 공유 가능하다.

04

(나)의 '바람'과 (다)의 '군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람'은 화자의 고독을 심화하는 매체이며, '군불'은 과거의 온기를 회복하려는 매체이다.
- ② '바람'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상징하며, '군불'은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게 하는 수단이다.
- ③ '바람'은 화자의 방향을 종결짓는 요소이며, '군불'은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이다.
- ④ '바람'은 자연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전령이며, '군불'은 경제적 빈곤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⑤ '바람'은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는 동인이며, '군불'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낸다.

05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화자의 참회록적 태도가 투영된 표현이다.
- ② 옛집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냉담한 시선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꿈에서 깨어난 후 마주하게 될 현실의 허무함을 감각적으로 예고한 것이다.
- ④ 추억을 되새기는 행위가 현재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 ⑤ 가난했던 과거의 삶이 현재의 풍요로움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0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외부 풍경의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 토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B]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신체 부위와 연결하여 고통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다.
- ③ [A]의 '슬픈 피리'와 [B]의 '쉴쉴한 뒷맛'은 모두 화자의 비애감을 감각화한 것이다.
- ④ [A]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고조를,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갈등의 해소를 보여준다.
-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처한 상황을 고립된 단독자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7

(나)와 (다)에 대한 내용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화자는 황혼이 저물어가는 시간대에 외줄기 길을 걷고 있다.
- ② (나)의 화자는 푸른 하늘을 조각난 자신의 감정이 담긴 '슬픈 건판'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다)의 화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린 지 이태가 넘은 상태이다.
- ④ (다)의 화자는 꿈속에서 어린 딸들과 함께 옛집의 마당에서 복새를 떨었다.
- ⑤ (다)의 화자는 뗏속에 새겨진 집의 기억 때문에 스스로 낯아감을 수용하고 있다.

08

(가)의 '주관적 변용'의 관점에서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낯은 전신주'를 '의장병'으로 인식한 것은 대상을 위협적인 존재로 변용한 것이다.
- ② '물소리'가 '가득하고'라고 표현한 것은 청각적 대상을 공간적 부피로 변용한 것이다.
- ③ '지팡이'가 '피리'가 된다고 한 것은 도구의 기능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을 변용한 것이다.
- ④ '나뭇가지'가 '촉수'를 짓는다고 한 것은 자연의 생명력을 인간의 의지로 변용한 것이다.
- ⑤ '푸른 하늘'을 '슬픈 건판'으로 본 것은 외부 세계를 화자의 내면 상태로 변용한 것이다.

09

(다)의 화자가 '집'에 대해 갖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정적 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현재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원인이지만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숙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③ 타인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내면의 벽이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④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현실 도피의 매개로 삼고 있다.
- ⑤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성찰적 공간으로 신성시하고 있다.

10

(나)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황에 따른 불안감 → 자연을 통한 위로 → 현실 복귀의 의지
- ② 고립에 의한 쓸쓸함 → 추억에 의한 애상감 → 허무의 심화
- ③ 대상에 대한 호기심 → 동질감 형성을 통한 기쁨 → 이별의 슬픔
- ④ 과거에 대한 그리움 → 현재에 대한 만족감 → 미래에 대한 희망
- ⑤ 현실에 대한 분노 → 체념을 통한 평정심 → 초월적 고요함

11

(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들길'은 화자가 위치한 '현재의 장소'로서 고독한 산책의 공간이다.
- ② (다)의 '옛집'은 '과거의 경험'이 화자의 내면에서 환기된 기억 속의 장소이다.
- ③ (나)의 '술밭'은 화자의 내면이 반영되어 '곱게 화장한' 모습으로 변용된 공간이다.
- ④ (다)의 '바닷가'는 화자가 현실의 결핍을 잊기 위해 도달한 '이상향'으로서의 공간이다.
- ⑤ (나)의 '푸른 하늘'은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슬픈 이미지로 구축된 공간이다.

12

(나)의 '지팡이는 슬픈 피리가 되고'와 (다)의 '나눌 길 없는 집한 채와 마주 쳐다보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발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생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②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다각화하고 있다.
- ④ 모순된 표현을 결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의 변화를 통해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시적 장면의 구성 원리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장면은 물리적 공간 그 자체보다 화자의 내면적 필터를 거쳐 재구성된다.
- ② 과거의 장소는 현재의 화자에게 소환되어 새로운 정서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 ③ 동적 이미지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만, 정적인 이미지와 결합할 수는 없다.
- ④ 비유적 이미지는 화자의 주관적 변용을 가능하게 하여 독특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⑤ 화자의 현실 인식은 시적 대상에 투영되어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14

(나)의 '양상한 나뭇가지'와 (다)의 '절룩거리는 평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소재 모두 화자가 처한 경제적 결핍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② '나뭇가지'는 화자의 외로움을, '평상'은 과거의 기억이 지닌 불완전함을 상징한다.
- ③ 두 소재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가 파괴되었음을 암시하는 징표이다.
- ④ '나뭇가지'는 자연의 쇠락을, '평상'은 인간 문명의 퇴보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 ⑤ 두 소재 모두 화자의 내면적 상처를 외부 대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결과물이다.

0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내면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출제의도]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③ (나)에서는 '의장병같이', '피리가 되고', '기폭인 양' 등의 직유와 은유를 통해, (다)에서는 '옛 등지', '쓸쓸한 뒷맛' 등의 비유를 통해 화자의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내면 정서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조락한 풍경'이나 (다)의 '퇴락'은 생명력보다는 소멸이나 쇠락의 이미지에 가깝다.
 ② (나)에 공감각적 표현(물소리가 가득하고 등)이 나타나나, (다)에서는 감각의 전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황량함보다는 쓸쓸함이 주된 정서이다.
 ④ 두 작품 모두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성찰할 뿐, 과거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 '내려 덮인' 등 하강 이미지가 있으나, 이는 정서의 심화일 뿐 의지적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 ⑤ (나)의 '황혼'과 (다)의 '퇴락'은 모두 공간과의 조우를 통해 삶의 비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겠군.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역설적 기능'과 '비애의 확인'이라는 관점을 작품의 구체적 시어와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⑤ (나)의 '황혼'은 고독한 분위기를 심화하며, (다)의 '퇴락'은 화자가 수용해야 할 쓸쓸한 현실을 의미한다. 보기에서는 이를 통해 '비애나 고독을 확인'한다고 했으므로, '희망을 발견'한다는 진술은 보기의 관점 및 작품의 정서와 배치된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시적 장면이 화자의 내면을 반영한다고 했으므로, (나)의 길은 화자의 고립감을 반영하는 배경이 된다.
 ② 자신의 감정을 하늘이라는 외부 대상에 투영하여 '건판'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면의 객관화에 해당한다.
 ③ (가)의 '과거의 장소가 내면에서 환기된 것'이라는 설명과 (다)의 상황이 일치한다.
 ④ 꿈속에서나마 옛집을 돌보는 행위는 과거의 소중한 공간을 통해 현재의 상실감을 달래려는 심리적 위로의 과정이다.

03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이번 사건에 대한 그의 해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출제의도]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지문 내에서 '화자의 내면이나 독자적인 변용'과 관련됨을 파악하고 유사한 문맥의 어휘를 찾는다.

[정답 풀이]

- ② ㉠의 '주관적'은 외부 대상을 화자의 내면 상태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고 변형한다는 의미이다.
 ② 의 '개인적' 역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 주체의 특수한 경험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문맥적으로 가장 가깝다.

[오답 풀이]

- ① '감정적'은 이성과 대비되는 감정에 치우친 상태를 뜻하므로 ㉠의 인식적 측면과는 차이가 있다.
 ③ '사실적'은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으로 ㉠의 '변용'과 상충된다.
 ④ '객관적'은 ㉠의 반대어이다.
 ⑤ '보편적'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통된 성질로 ㉠의 독자성과 대비된다.

04 소재의 기능 분석

정답: ① '바람'은 화자의 고독을 심화하는 매체이며, '군불'은 과거의 온기를 회복하려는 매체이다.

[출제의도]

시적 허용 범위 내에서 각 소재가 화자의 정서와 결합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① (나)에서 '바람'은 갈대밭을 흔들고 사라지며 화자의 '여원 그림자'를 불리는 등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에서 '군불'은 꿈속에서 옛집을 돌보며 과거의 기억과 유대감을 되살리려는 행위의 산물이다.

[오답 풀이]

- ② '군불'은 고통의 망각이 아니라 과거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행위이다.
 ③ (다)의 마당에서 어머니와 다투는 기억이 나오나 '군불'이 이를 해소하는 직접적 장치는 아니다.
 ④ (나)의 바람은 '어두운 갈대밭'과 연결되어 생명력과는 거리가 멀다.
 ⑤ '군불'을 때며 느끼는 감정은 '쓰디쓴 고해'와 연결되므로 현재의 만족으로 보기 어렵다.

05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정답: ④ 추억을 되새기는 행위가 현재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출제의도]

'쓰디쓴 고해'라는 표현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화자의 전체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화자는 꿈속에서 옛집을 정성껏 돌보지만, 그 행위를 '쓰디쓴 / 고해만은 아닐 것'이라 하여 쓰라린 고통이 담긴 일로 표현한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그 기억이 '뱃속으로 옮겨 앉아' 화자를 구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과거의 행위(다투거나 등)를 언급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참회보다는 그리움과 상실감에 가깝다.
② 타인의 시선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쓰디쓴'은 꿈속에서의 행위 자체에 대한 수식이지, 꿈에서 깬 후의 상황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과거가 현재의 풍요를 방해한다는 인식은 지문의 '퇴락을 안고 살아가느니'와 배치된다.

06 서술 및 전개 방식

정답: ④ [A]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정서의 고조를,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갈등의 해소를 보여준다.

[출제의도]

두 구간의 시상 전개 방식과 정서적 지향점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④ [A]는 정적인 풍경 속에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B] 역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퇴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줄 뿐,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햇빛, 솔밭 등 풍경 묘사 후 '쉴기도 하다'는 내면으로 이어진다.
② '기억'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뼈'와 '살'이라는 신체 이미지로 구체화했다.
③ 청각(피리)과 미각(뒷맛)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⑤ [A]의 '나 혼자', [B]의 '혼자 음미하는'을 통해 고독한 화자의 위치가 드러난다.

07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③ (다)의 화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린 지 이태가 넘은 상태이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독해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③ (다)의 첫 문장에서 '팔아버린 지 이태 더 지난 옛집'이라고 하였으므로, 팔아버린 대상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옛집'이다.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비튼 함정이다.

[오답 풀이]

- ① '황혼을 부르고', '저녁 안개' 등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한 개의 슬픈 건판인 푸른 하늘'이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다.
④ '어린 딸들까지 데리고 가서 복새 놀다가'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⑤ '퇴락을 안고 살아가느니'라는 마지막 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시상 전개 및 전환

정답: ⑤ '푸른 하늘'을 '슬픈 건판'으로 본 것은 외부 세계를 화자의 내면 상태로 변용한 것이다.

[출제의도]

(가)의 이론적 틀을 (나)의 구체적 시구에 적용하여 '주관적 변용'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⑤ (가)에서 주관적 변용은 '화자의 현실 인식 및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다. (나)에서 광활하고 푸른 하늘을 '조각난 감정'의 '슬픈 건판'으로 인식하는 것은 화자의 우울한 내면이 외부 공간에 투영되어 변용된 전형적인 사례이다.

[오답 풀이]

- ① '의장병'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대한 비유일 뿐, 위협적인 존재로의 변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묘사일 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주관적 변용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③ '피리'는 슬픈 노래를 연주하는 매체로, 화자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용된 것이지 기능 상실의 절망이 아니다.
④ '촉수'는 희미하고 양상한 이미지를 강화하여 황혼의 쓸쓸함을 부각하는 것이지 생명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다.

09 화자의 심리 및 태도

정답: ② 현재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원인이지만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숙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와 '집'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어들을 종합하여 화자의 지향점과 태도를 정밀하게 도출한다.

[정답 풀이]

- ② 화자는 집을 '나눌 길 없는', '허물지 못해' 등의 표현을 통해 자신과 일체화된 존재로 인식한다. 비록 그것이 '쓸쓸한 뒷맛'과 '퇴락'을 가져오지만, 이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숙명적 수용'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퇴락을 안고 살아가다'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 동행의 대상임을 시사한다.
③ 집은 화자의 내면(뱃속)에 있는 것이지, 타인과의 소통을 막는 외부적 장벽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④ 과거의 집은 '쓰디쓴 고해'이며 '퇴락'과 연결되므로 화려한 과거로의 도피라고 보기 어렵다.
⑤ 집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긴 하지만, 이를 '신성시'한다는 표현은 지문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

10 정서의 흐름 분석

정답: ② 고립에 의한 쓸쓸함 → 추억에 의한 애상감 → 허무의 심화

[출제의도]

시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적 앵커를 찾아 흐름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초반부의 '외줄기 길', '낡은 전신주' 등은 고립감을, 중반부의 '옛 생각은 쉽기도 하다'는 추억에 의한 애상을, 후반부의 '조각난 나의 감정', '희미하게 빛나다'는 허무와 쓸쓸함의 심화를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현실 복귀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자연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은 있으나 '기쁨'과는 거리가 멀다.
 ④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나 미래의 희망은 지문의 '조락', '양상한' 등의 이미지와 상충된다.
 ⑤ 분노나 초월적 소요함은 지문의 애상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11 관점의 비교 및 적용

정답: ④ (다)의 '바닷가'는 화자가 현실의 결핍을 잊기 위해 도달한 '이상향'으로서의 공간이다.

[출제의도]

(가)에서 제시한 공간의 두 층위(현재/과거)를 바탕으로 각 작품의 공간이 지닌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④ (다)에서 '바닷가'는 꿈속에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혼자 나간 공간으로, 옛집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을 음미하는 연장선상의 공간이지 현실을 잊게 하는 '이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찾아 나간다'는 표현을 통해 현재 화자가 견고 있는 실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이태 더 지난 옛집'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은 과거 공간의 내면적 환기이다.
 ③ 화자의 애상적인 눈에 비친 술밭의 모습을 '곰게 화장한' 것으로 주관적으로 변용하였다.
 ⑤ 푸른 하늘을 '슬픈 건판'으로 인식하는 것은 화자의 우울한 현실 인식이 투영된 결과이다.

12 수사법의 효과

정답: ② 사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출제의도]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감정 이입'과 '의인화'의 양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② '슬픈 피리'는 지팡이에 화자의 슬픔이 투영된 것이며, '집과 마주 쳐다보며 잔술을 내미는 행위'는 집을 인격화하여 화

자의 쓸쓸한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감정 이입)으로 삼은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다)에는 의인법이 있으나 (나)의 '피리가 되고'는 은유에 가깝고,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 정서 표출이 핵심이다.
 ③ (나)에는 해당하나 (다)는 빗대기보다 대상과의 교감에 초점이 있다.
 ④ 역설적 표현은 두 구절 모두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
 ⑤ 인간 삶의 유한성이라는 주제는 (다)와 연결될 수 있으나 (나)의 해당 구절과는 거리가 멀다.

13 종합적 이해

정답: ③ 동적 이미지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만, 정적인 이미지와 결합할 수는 없다.

[출제의도]

(가)의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시의 일반 원리를 도출하고, 지문의 한정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③ (가)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방향성을 지닌 동적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 등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서로 결합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은 없다. 실제 (나)에서도 '바람이 흔들고 사라져 간다(동적)'와 '기대어 섰으면(정적)'이 결합하여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화자가 포착한 시적 대상을 통해 구성되어 화자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② (가)의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속의 장소가 화자의 내면에서 환기된 것'이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④ (가)의 '비유적 이미지 등을 활용한 주관적 변용'이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⑤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명시된 내용이다.

14 문맥적 적용

정답: ⑤ 두 소재 모두 화자의 내면적 상처를 외부 대상으로 전이시켜 표현한 결과물이다.

[출제의도]

서로 다른 시어들이 화자의 내면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주관적 변용'을 이루는지 통합적으로 고찰한다.

[정답 풀이]

- ⑤ '양상한 나뭇가지'는 화자의 고독하고 조각난 감정을, '절룩 거리는 평상'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온전치 못한 화자의 내면 상태를 외부 사물에 투영(전이)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는 (가)에서 말한 '내면 반영'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오답 풀이]

- ① '평상'은 낡은 이미지를 주지만, 두 소재의 핵심이 경제적 결핍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평상'이 기억의 불완전함보다는 그 기억을 안고 사는 화자의 고단한 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⑤ 가 더 적절하다.

-
- ③ 이상적 세계의 파괴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적인 비애와 고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④ '평상'을 문명의 퇴보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